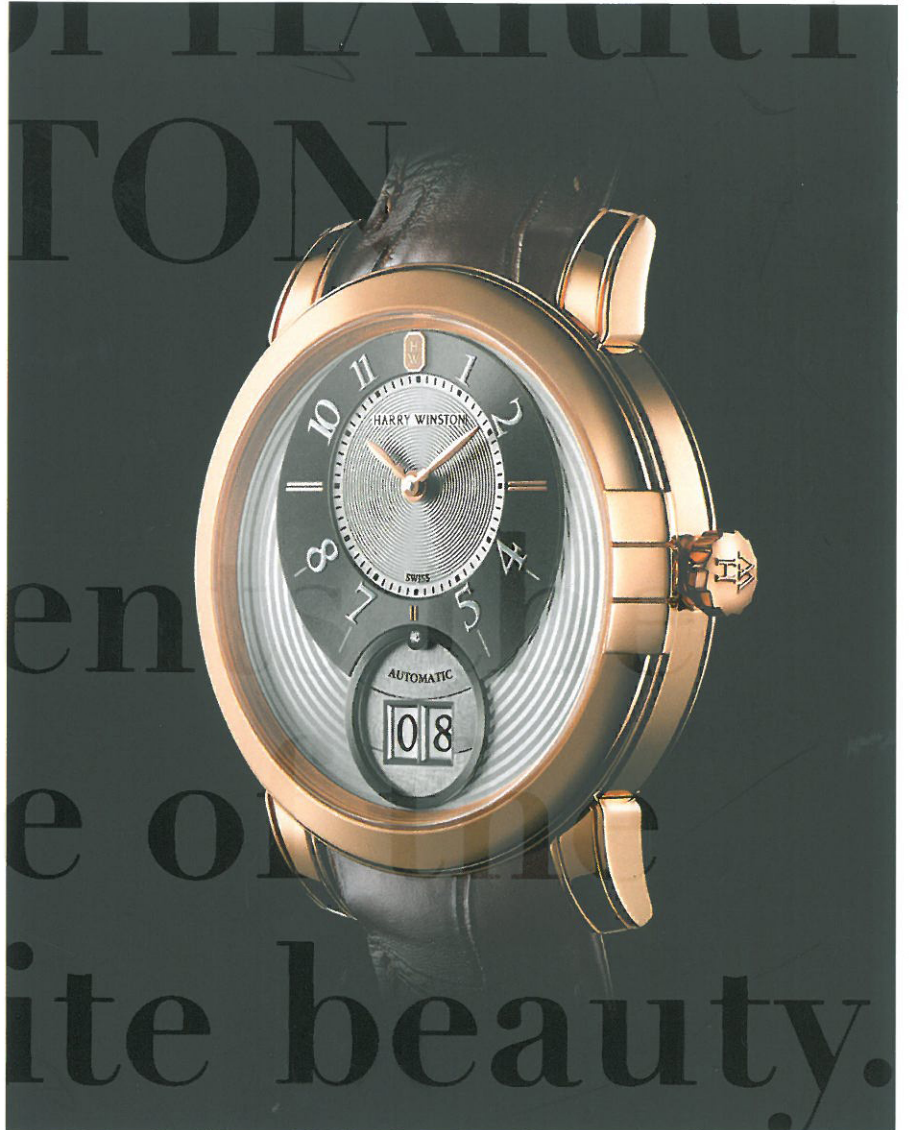


noblian

Contemporary Lifestyle Destination
THE SHILLA



No153 

EDITOR
AHN SANGHO

PHOTOGRAPHER
KIM SANGMIN

COOPERATION
PLATEAU(82-2-1577-7595)

culture Zoom in

Good Art Bad Labor

The ethical boundary between what's good and bad is getting blurred. A result often speaks louder than the process. And an artist is trying to say that it is wrong. But again, art is something good and labor is something bad.

요즘 태평로 삼성미술관 플라토 앞에는 개 같은 형태의 검은 색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제목도 '개 같은 형태'다. 김홍석 작가의 작품인데 마치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 인형 같지만 사실 쓰레기를 담는데 주로 쓰이는 커다란 검정색 비닐 봉투로 만든 것이다. 제프 쿤스의 작품 '강아지'의 패러디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미술에서 차용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작품이다. 이번에 열리는 김홍석 개인전인 <좋은 노동 나쁜 미술>이 열리는 플라토 곳곳에서 시각적 즐거움을 주면서도 이러한 개념적 부분들에 대한 작가의 문제제기가 들어있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이다.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술가들은 작업실에 앉아 혼자 자신의 그림을 그렸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미술의 매체가 점차 다양해지고 장르를 넘나들기 시작하면서 작업물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달라졌다. 미디어 아트는 영상 기기를 잘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이, 설치 미술가는 재료를 운반하고 조합하고 설치하는 데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김홍석 자신의 전시를 위해서도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과 작품을 운송하는 사람, 벽면에 그림을 붙이는 사람 등 숙한 노동이 필요했다. 하지만 전후배경에 상관없이 관객의 시선은 오직 작품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노동 나쁜 미술>은 미술품 뒤에 가린 이름 없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정한 제목이다. 설치, 퍼포먼스, 조각, 영상 등을 통해 개념적인 작업을 선보여온 작가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노력이 집약된 미술품을 미술가 개인의 소유로 인식함이 과연 옳은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의 작품 뒤에 숨어 있는 한 가지 감정은 불편함이다. 그저 예쁘거나 재미있게만 보이는 작품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고 미처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을 관객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가 이번 전시의 목적이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김홍석은 이번 전시의 오프닝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전시는 미술 안에 속한 사람들의 노동에 관한 이야기다. 미술 작품 한 점이 나오기까지 협력자가 많이 필요한데도 정작 완성된 미술품은 미술가 개인에게만 부와 명성을 가져다준다. 미술가들이 작품에 들어간 많은 사람의 노력에 대해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했다. 유명 미술인이 얻는 부와 명성에 견주면 이름 없는 조



한국의 제프 쿤스라고도 하는 김홍석은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뒤셀도르프 콘스트아카데미를 졸업했다. 다수의 개인전을 열고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전 세계의 여러 유명 비엔날레에도 참여했다. 동시대의 트렌드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애착이 깊다.

력자들의 노동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미술 학도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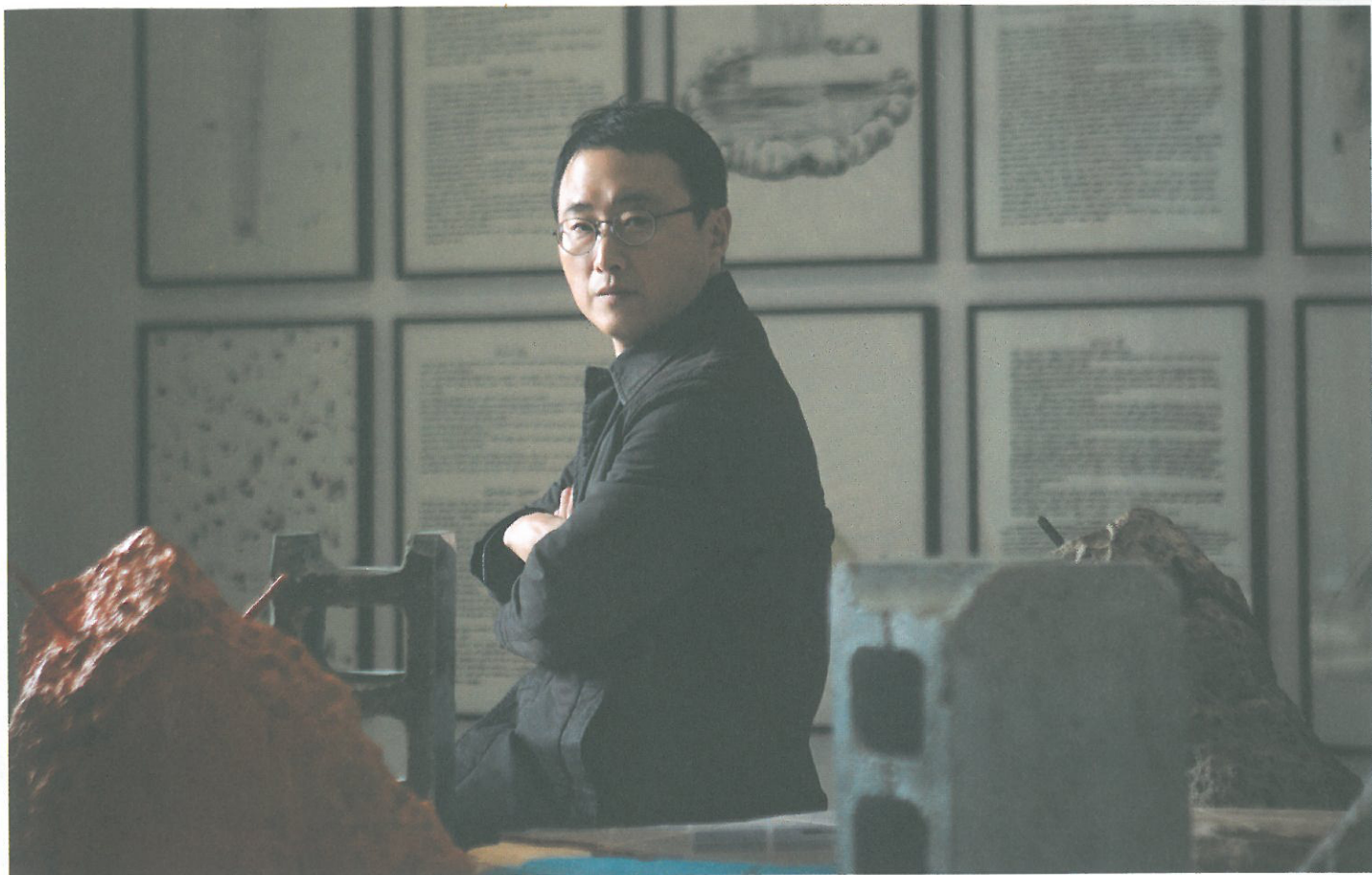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미스터 김’이라는 작품은, 원래 실제 사람이 담요를 뒤집어쓰고 서 있는 퍼포먼스를 전시 내내 하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힘든 노동이어서 설치 작품으로 대신했다. 물감으로 밀바탕을 칠한 캔버스에 일용직 노동자가 일당을 받고 걸레질로 닦아낸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화 ‘걸레질’과 ‘빛자루질’, ‘뉘기’, ‘젓기’는 육체노동과 지적 노동의 차이를 드러낸다. 하지만 사실은 이 네 작품 모두 작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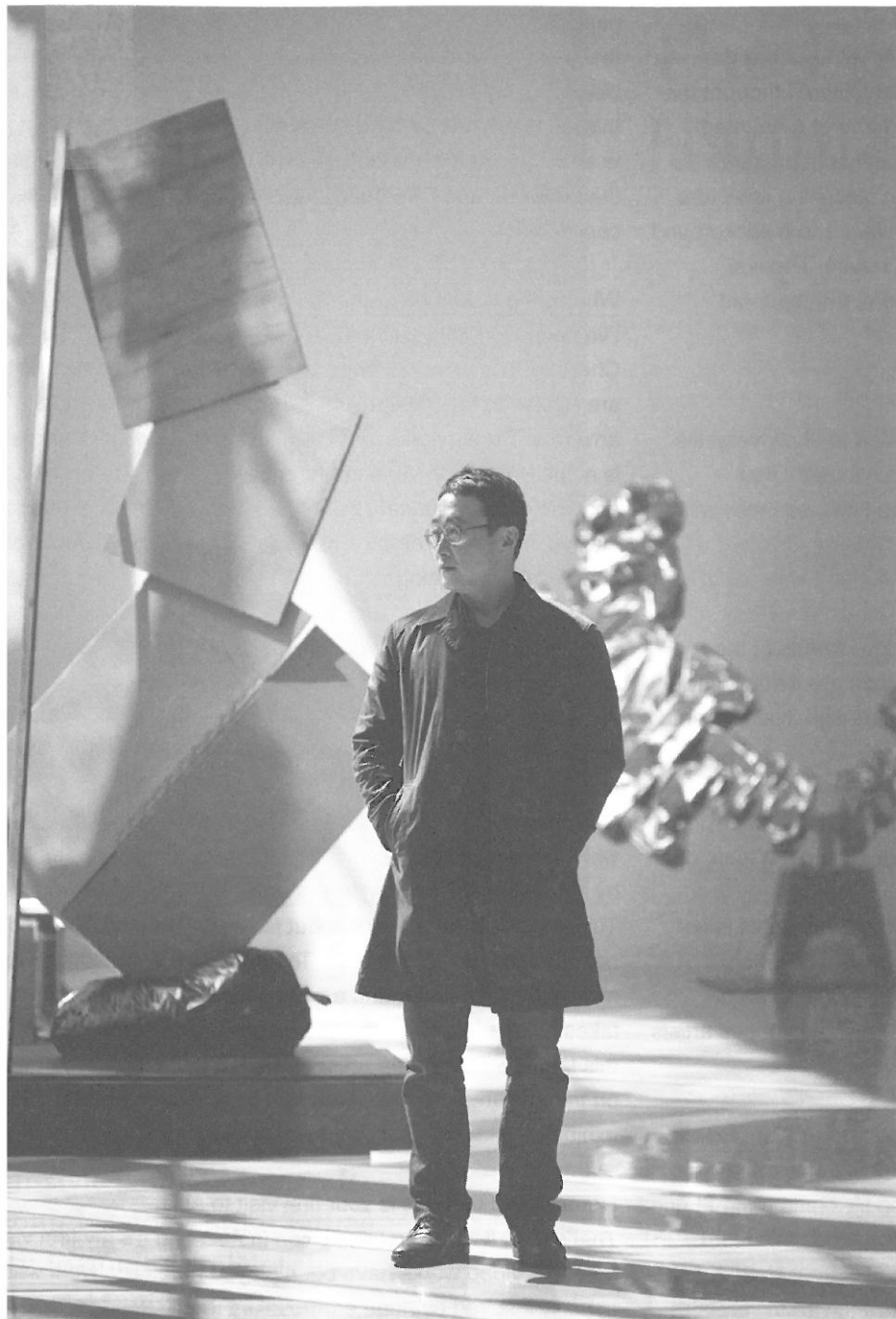
“기자 간담회에서 분명히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 신문에서는 다른 노동자가 대신 그린 것처럼 나가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다. 말을 조심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그리고 그는 그저 웃었다. 약간의 해프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확대 재생산 속에서 우리는 진실 혹은 사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고 있는 것과 보고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것, 그리고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장치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전시된 그의 작품 중에는 드로잉과 텍스트가 결합된 ‘공공의 공백’이라는 6개의 작품이 있다. ‘고독의 탑’, ‘속죄의 공원’, ‘승리의 광장’, ‘평화의 광장’, ‘자유의 광장’, ‘윤리의 탑’이 그것이다. 6개의 드로잉과 글 모두 그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일정 부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차용의 문제이든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든 모두 그 분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익집단으로 인한 난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윤리의 탑’도 일정 부분 비교면서 이번 전시를 읽는 배경으로 유용하다. 그 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윤리의 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실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탑을 공공장소에 건립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면 적어도 인권에 대해 매우 진보적이어서 사회적 우화가 넘실거리는 곳일 확률이 높다. …(중략)… 이 탑은 단순한 조각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들은 탑으로 입장하여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탑에 오르기 위한 가혹한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중략)… 재정적으로 궁핍하거나, 사회에서 박탈되어 이 탑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탑 입구에 있는 데스크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과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받는다. 이 절차에 합격된 이들은 이 탑을 오르는 대가로 일회, 한화 삼만원(미화 삼십 달러)을 지급 받는다. 이때 정상에 올라 한 시간을 서있어야 하는 조건이 입장객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된다…(생략)…”

트릭으로 쌓아올린 예술

존 F. 케네디의 연설을 광주 지역 한 초등학생에게 읽게 한 영상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연기자를 활용한 또 다른 ‘공공의 공백’ 등은 제작에 동원된 다양한 협력자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관람객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작품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작가가 개입할 수 없는 관람객의 시선은 매번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한다. 속임수와 트릭이 만연하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앞서 설명한 제프 쿤스의 ‘강아지’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강아지 조각은 사실 검은 쓰레기봉투의 조합이다. ‘개 같은 형태’라는 이 작품과 종이 상자와 낡은 침낭을 쌓아 올려 금세 무너질 것 같지만, 레진으로 만든 튼튼한 조각인 ‘기울고 과장된 형태’에 대한 연구-LOVE’도 이런 트릭에 대한 연장선에 있다. 결국 김홍석이 바라보는 미술가는 속임수를 쓰는 아바위꾼처럼 모순되고 역설적인 직업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윤리적인 경계도 무시한 채 오직 작품이라는 실제이면서 관념 덩어리에 몰두한다.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람객이 감상하고 떠올리는 생각은 그의 생각을 이어갈 수도 또는 전혀 다른 지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관람객 스스로 제가 제안한 나쁜 미술 또는 관람객이 생각하는 좋은 미술과 어떻게 전시장 안에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지가 제가 생각한 바입니다.”¹¹





EDITOR
AHN SANGHO

PHOTOGRAPHER
KIM SANGMIN

COOPERATION
PLATEAU(82-2-1577-7595)

The ethical boundary between what's good and bad is getting blurred. A result often speaks louder than the process. And an artist is trying to say that it is wrong. But again, art is something good and labor is something bad.

Good Art, Bad Labor

Plateau, Samsung Museum of Art in Taepyeongro, Seoul, presents a solo exhibition by Gim Hongsok, titled "Good Labor, Bad Art." This exhibition i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labor hiding behind artworks that bring honor and glamor only to the artists. Gim, an artists who presented conceptual art by installation, performances, sculpture and video, poses a penetrating question. Is it right to acknowledge an artwork as a sole possession of an artist, when it was created as an outcome of efforts of so many others?

Gim said in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This exhibition is about labor of those who belong to art. It takes quite a number of collaborators for an artwork to be born. But the completed artwork brings wealth and fame to the artist alone. I wanted to think about an ethical attitude about the efforts of those who helped in the process." Up until a few decades ago, artists sat still in their studios and worked on their paintings. But things started to change. Art genres got diversified and artists started to have various means to work with. For example, a media artist has to have a help from experts of imaging devices. An installation artists needs manpower to deliver, assemble and install their works. For Gim's own exhibition, he needs labor force of those who plan the exhibition, deliver the artworks and hang the paintings on the wall. But the artist alone enjoys focused attention of spectators. So Gim came up with the exhibition to bring light to the value of labor of those who hide behind artworks. This is why one of the emotions that are hiding behind the exhibition is discomfort. And the purpose of the exhibition is to communicate that discomfort with the spectators. "In reality, labor of anonymous collaborators get almost zero recognition, in comparison to the immense wealth and fame of some famous artists. I wanted to bring light to this reality. It may not bring about huge change, it is still meaningful for me,

not only as an artist but also as an art teacher."

Art built by tricks

An artwork, titled "Mister Kim," was originally intended to be a performance of a person who stands still, covered with a blanket. But it turned out to be too much labor. So the installation became a good substitute.

Another artwork, "Mopping," presents a colored canvas that is mopped by day laborer. The painting presents a difference between physical and intellectual labor.

"I Am a Berlin Citizen" presents a teenage student from Gwangju city reading a speech by John F. Kennedy. These artworks all were made possible thanks to various collaborators, and their meanings may change according to reactions of spectators. And the spectators' perspectives give birth to new meanings of the same artworks. This can be a satire of the reality, which is filled with tricks and lies. There is a sculpture of a puppy, that is like a reminder of the artwork by Jeff Koons. If you get closer, however, it is actually a mixture of black garbage plastic bags. Gim also presents a solid sculpture made up of paper boxes and old sleeping bags, together with resin. At a glance, it looks as if it would fall in any minute. But it is actually very solidly fixated. All of these artworks talk about tricks and lies of reality. After all, Gim's idea of an artist is like a trickster, whose job is all about contradictions and deceits. There is no ethical boundary, as the artist gets focused only on his or her artwork. As a result, there should be the criticism about the ethics of such artists and artworks. And it is left to the spectators to mull over the thoughts. "I hope spectators could get a moment to think about my idea of bad art, and to talk about what good art should be," Gim said.